



광주경찰청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 붕괴사고 수사본부 등 유관기관이 16일 오후 광주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현장에서 1차 합동 감식에 나서고 있다. /뉴스시스

## “왜 무너졌나”...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현장 합동 감식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현장 합동 감식에 나서 제기된 건축물 구조적 결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광주경찰청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16일 오후 2시30분부터 붕괴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1차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다.

붕괴된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 여부 등 사고 원인을 과학·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철골구조물 접합부 결함 등 원인·경위 조사 수사본부 “설계·시공 문제 면밀히 살필 것”

위해서다.

수사본부는 유력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철골 구조물의 ‘접합부 결함’ 등을 비롯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계측 장비와 촬영용 무인 비행체(드론) 등을 동원해 붕괴 구역에서 무너져 내린 콘크리트 형상, 철근 돌출 부위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앞서 수사본부와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 12일 원정인 구일종합건설을 비롯해 6개 공사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현재까지 공사 관계자 5명을 조사하고 주요 참고인 8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한 상태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도서관 건립사업 시공 관련 서류와 사고 이력 자료 등을 확

보, 공사 과정에서 사전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고 조치했는지 등을 들여다본다.

특히 동바리 등 지지대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특허 공법’으로 시공하면서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박동성 광주경찰청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수사본부 부본부장(광주형사기동대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현장 감식을 통해 붕괴원인과 설계·시공상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부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을 위한 첫 6자회담(TF)이 17일 열린다.

공항 이전과 관련이 있는 3개 지자체와 3개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회동으로 광주공항 이전에 대한 합의문 발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전남·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 이전 첫 6자회담... ‘통큰 합의’ 관심

국방부·국토부·기재부·광주시·전남도·무안군 참석

무안군·국방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광주공항 이전과 직접 관련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6자 첫 공식 회동이 17일 오전 열린다.

6자회담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김영록 전남지사·김산 무안군수·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것

로 알려졌다. 또 지난 달 19일 대통령실·광주시·전남도·무안군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4자회담에서 광주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돼 이번 6자회담에서는 합의안 도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면에 계속> /전광훈 기자

## 국토부 “여객기참사 사조위 총리실 이관”

국회 12·29여객기 참사 특위 현안질의 사조위 “조사 연속성 있도록 이관 준비”

‘양친 사망’ 상속세 지적도 “제도 개선”

20·27일 시민추모대회... 29일 1주기 추모식

정부가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2항공 여객기 참사(12·29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 국토부 소속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국무총리실 이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국회 12·29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고 조사 독립성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법 개정 논의와 필요한 사전 준비에 적극 참여해 신속하게 (사조위를) 국무조정실로 이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조위 소속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조위는 국회로 소속을 옮기게 된다.

김 장관은 “12·29 여객기 참사가 벌써 1년이 돼가지만 여전히 모두의 가슴에 큰 상처로 남아 있어 마음이 무겁다”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12·29 여객기 참사 공청회를 추진한 데 대한 사과도 있었다. 앞서 사조위는 4일과 5일 이틀간 ▲조류(버드 스트라이크) ▲방위각시설·둔덕(로컬라이저) ▲기체·엔진 ▲운항 등 총 4개 주제별 중간 보고 성격의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유가족 반발로 연기했다.

김기훈 사조위 사무국장은 “4일 개최하려던 공청회는 사고의 최종 결론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과 조사 진행 상황을에 대한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돼 이번 6자회담에서는 합의안 도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면에 계속>

/전광훈 기자

고 자세를 낮췄다.

김 국장은 사조위 이관 절차와 관련해서 “조사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먼저 조사가 완료된 건은 최종 보고서 등 관련 기록물과 문서, 물품을 이관 준비 중”이라며 “조사 중인 건은 중단 없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긴밀히 협의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러진 현안질의에선 여객기 참사로 부모를 모두 잃은 유족 자녀가 상속세 부담을 지게 되는 것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윤종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아가 된 유가족이 상속세 부담으로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부모가 동시에 사망하게 되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수억원의 상속세 부담을 지는 것에 대책이 없느냐”고 따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깜 추락 사고 때 희생자들이 처우에는 동시 사망으로 인식됐으나 과학적 검증이 이뤄져서 순차 사망을 인정받아서 유가족이 억울한 상속세를 내는 일을 줄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세금 관련은 기재부 소관이라서 이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입법이 필요하면 국회가 나서겠다”고 과학적 검증이 어려울 때 유가족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세제 개편안을 고민해달라”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추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오는 20일 서울 보신각, 27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시민 추모대회를 연 뒤, 29일 무안공항에서 유가족과 주요 내빈 1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추모식을 열 계획이다. 또한 전국 주요 공항과 철도역사, 전남도청, 광주 전일빌딩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유가족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도 진행한다. /뉴스시스

Self **참숯구이**  
**장어멍가 청산**  
 광주점

**장어멍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여과 및 미생물 배양 정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우수)  
해양수산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해양수산부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멍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멍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